

## 구할망본

이번에는 구 할망본입니다.

구할망은 뭐고 허면. 열다섯 살 안네에, 이제 죽어부는 애기들은 구할망이 데령 가는<sup>1)</sup> 거. 서천꽃밭더레. 우리 열다섯이 넘영 어른 역할허는 사름들을 데리고 가는 거는, 체스가, 사자가 데리고 저승을 가지만은, 애기들은 구할망이 데령 서천꽃밭더레 가는 거. 거난 이거 구할망본인데.

옛날 동이용궁말젯뜰아기가 혼 설적엔 어멍 젓가심을 두드린 췌, 두 설적엔 아버지 삼각수(三角鬚) 훌튼<sup>2)</sup> 췌척<sup>3)</sup>, 시 설적엔 뽀<sup>4)</sup> 의복을 버물린<sup>5)</sup> 췌척, 니 설적<sup>6)</sup>엔 동네 델척종저<sup>7)</sup> 우막음제<sup>8)</sup> 준 췌척, 다섯 살엔 날레 널영 놔두민, 그거 다 허데겨분<sup>9)</sup> 췌척, 경, 다섯 술<sup>10)</sup>지 마련허연. 무쇄설캅(鐵石匣)을 짠. 이거 그냥 보내민 안될 거난. 글 삼제(三字)를 백이기를 ‘임브로 임박스 시절 나진 게문 게탁’ 허연. 그 무쇄설캅에 글을 썸. 강남천자국에서 그냥 그걸 보내난 물 우이도 연삼 년 흥당망당 살고, 물 아래도 연삼 년, 중간에도 연삼 년 살안 떠 덩기단. 들물썰물에 지쳐네<sup>10)</sup> 올른 건 보난, 백물레왔디<sup>11)</sup>에 그 무쇄설캅(鐵石匣)이 올른 거라. 거난 임박스 시절이 나난, 임브로 임박스는 아무생각 엇이 츠에 물가에 느려다보난 무쇄설캅이 잇인 거아니. 거난, 저건 무신건고 허영 간 보난. ‘임브로 임박스 시절 게문 게탁’ 행 써젯이난. 아,

‘어멍헨 날<sup>11)</sup>라 이걸 열렌헤연 이것이 써진 거라. 무신 거 들엇인고.’ 허연. 그걸 건져 놓안 올안 보난. 췌<sup>11)</sup>든 애기씨가 앓아잇인 거라.

“넌 누게냐?”

허난.

“나는 동이용궁말젯뜰아기가 됩니다.”

허난.

---

1) 데령 가는: 데리고 가는.

2) 훌튼: 잡아 뽑은.

3) 췌척: 죄목.

4) 뽀: 뽀.

5) 버물린: 더럽게 한.

6) 니 설적: 네 살적.

7) 델척종저: 덜 성 부른 종자

8) 우막음제: 식물을 옷자라지 못하게 순을 자름.

9) 허데겨분: 흘뜨려버린.

10) 지쳐네: 치여서..

11) 백물레왔디: 백모래밭.

“너 잘하는 게 뭐냐?”

허난.

“나는 모든 걸 다 잘 합니다.”

허난.

“경 허민. 우리 집이 안부인, 강 흔 번 포테(胞胎)나 시겨보라.”

허난

“시겨지크냐?”

허난. 시겨지켄. 경 허거들랑 우리 안부인 포테시기렌. 게난 이젠 간 임박서 안부인은 포테(胞胎)는 시기난. 아이, 흔 덜 두 덜 아호열 덜 준수(準朔)은 차도, 해산을 못 시기는 거라. 포테(胞胎)는 줄줄 알고, 해산을 못 시기는 거라. 아이 게난 그디도 또 애기어명도 죽을 스경(死境)이 당허고, 임박서가 탁 천만낙심(千萬落心)을 허연 잇단, 아이고, 아멩해도 이제 옥황더레 등장(等狀)을 드러보주긴 허연. 백물레왓딜로 간. 낮인 촌<sup>12)</sup> 벳<sup>13)</sup> 맞고, 밤인 촌 이슬 맞으멍 옥황드레 금바랑 소리를, 옥황상저님안티 등장(等狀)을 드난. 옥황상저님이

“야, 성관도서야, 저 굽어보라. 어떻허난 뭐가 칭원(稱冤)헌 일 잇인 백성이 이렇게 이제 밤낮으로 금바랑<sup>14)</sup> 소리를 올렸이나?”

허난. 성관도서가 내려산 들으난,

“아이고, 우리 안부인 포테(胞胎)는 뉘어도 해산을 못 허연. 이제 애기어명이 죽을 스경(死境)이 뉘엇습네다.”

허난. 이젠 옥황상저가 이제 할마님신디 연락을 헌 거주게. 명진국 할마님신디. 게난, 명진국 할마님은 들어오멍 지동더레 열두폭 대웅대단(大紅大緞) 치메 벗언, 탁허게 걸어 두고, 만상 즉두리 호양미 감테<sup>15)</sup> 벗어 놔 두고 허연. 들어 완, 북덕자리<sup>16)</sup> 출련. 아끈<sup>17)</sup> 장식<sup>18)</sup> 한<sup>19)</sup> 장식에 할마님 들언. 그 애긴 내완. 놔 두난. 아이, 동이용궁 말젯뜰 애긴 어디 텅기단 보난 난데엇이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허난.

“아이고, 난 해산을 안 시겼인디 어떻 험인고?”

---

12) 촌: 찬.

13) 벳: 별.

14) 금바랑: 요령과 바라.

15) 감테: 모자의 일종.

16) 북덕자리: 짚을 두툼하게 깎 자리.

17) 아끈: 작은.

18) 장식: 몸이 불편할 때 내는 끽끄끄거리는 소리.

19) 한: 큰.

이젠 들어와보난, 명진국 할마님이 앓안 잇인 거라. 경 허난 이젠,

“아이고, 내가 포테준 거 감히 누게가 이거 해산을 시겠이넨<sup>20)</sup>.”

이젠 싸움바라기 뉘 겨주. 게난 명진국할마님은 옥황더레 도올라산<sup>21)</sup> 옥황상저님한테 간, 이만저만 허연.

“동이용궁 말젧뜰 아기가, 지가 포테(胞胎)헌 거 나가 해산 시겠덴 헤연 영영 험우다.”

허연 이르난. 경 허민 너네 둘이 다 이리 오렌. 경 불러단. 은동이 늦둥이에 쫓씨 싱근 그걸 준 거라. 너네가 이거 수뚝 주고<sup>22)</sup> 물 주멍 잘 키와 보렌. 겐 주난. 할마님이 싱근 쫓<sup>23)</sup>은 보록보록 허연. 빨리<sup>24)</sup>는 하나에, 웨 불리에. 가지가지 송에송에가 사만오천육백 가지로 벌어지고, 동이용궁 말젧뜰 애기 싱근 건, 가지는 웨가지<sup>25)</sup> 하나가 딱 올라오고, 빨리는 사만오천육백 가지로 막 벌어진 거라. 게난, 너네 이걸 보나, 저걸 보나. 경 허건, 명진대왕 뜨넘아기랑 명진국 할마님으로, 널랑 들어 상, 이제 법지법(法之法)을 마련허고.

동이용궁 말젧뜰아기랑 명진국 할망이 포테(胞胎)를 쥘 놔두건. 석 달, 열흘 백일 쯤만 돼 걸랑. 물로, 피로 흐르게 멘들고. 또, 애기 낭<sup>26)</sup> 사흘 일주일 백일 쯤만 돼걸랑 애기 어멍 젧네<sup>27)</sup> 맞춥, 경 허영 그 애기 들앙 가고, 경 해근에게 널랑 얻어먹길 마련 허렌. 게난 할마님이 포테(胞胎) 쥘 놔두민. 흔 백일쯤 돼민, 그냥 낙태(落胎) 돼게시리 낙태증을 불러 쥘. 경 허연 구할망이 이제 허고, 또 애기 낭 며칠 아니 돼민, 애기 어멍 핏네<sup>28)</sup> 맞추왕 오랑. 애기 들앙 가불고, 또 애기, 흔 백일쯤 돼영. 업영 텡겡이믄<sup>29)</sup> 젧네 맞추왕 애기어멍 업영 텡겡이믄 젧네 나고 허난, 애기 지성기<sup>30)</sup>에 붙언, 경 허연 들앙가불고. 경 허멍 허난. 명진국 할마님은 흔 달 앓으민 여섯 번을 상을 받는데, 구할망은 흔 달 앓으민 세 번백이 상을 못받아. 초 아흐레, 열 아흐레, 스무 아흐레. 이 아흐렛날은 구할망 날이엔 허영 이제 허고, 서천꽃밭더레 열다섯 안네 즈손들 들앙가부는 것은

20) 시겠이넨: 시켰느냐.

21) 도올라 산: 올라 사서.

22) 수뚝 주고: 흙을 모아 올리다.

23) 싱근 쫓은: 심은 쫓은.

24) 빨리: 뿌리.

25) 웨가지: 외가지.

26) 낭: 나서.

27) 젧네: 젧 냄새.

28) 핏네: 피 냄새.

29) 텡겡이믄: 다니고 있으면.

30) 지성기: 기저귀.

구할망본 입니다.